

Daily Auto Check

2020. 6.17(Wed)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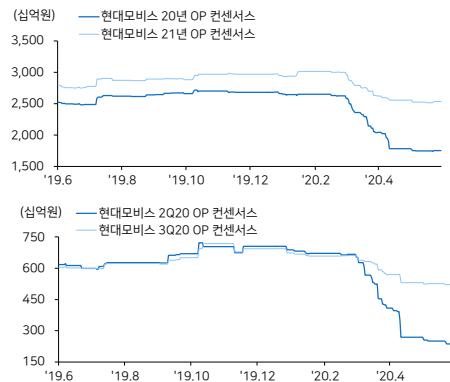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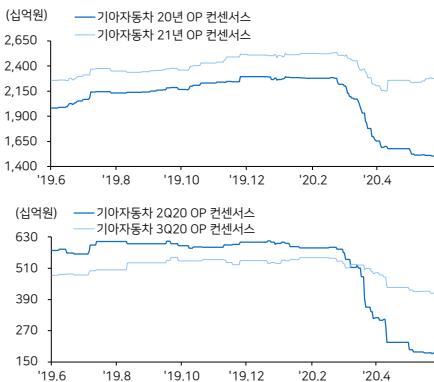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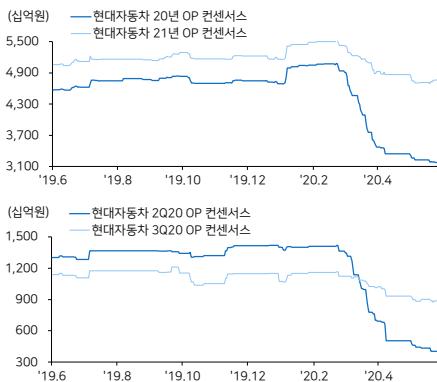
RA 이다빈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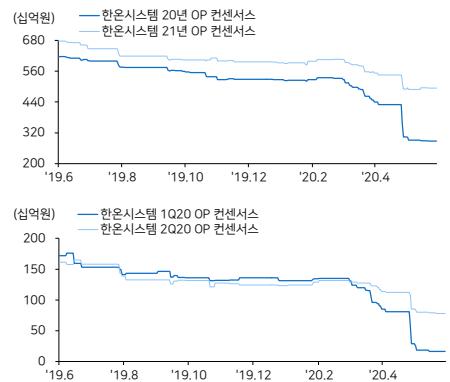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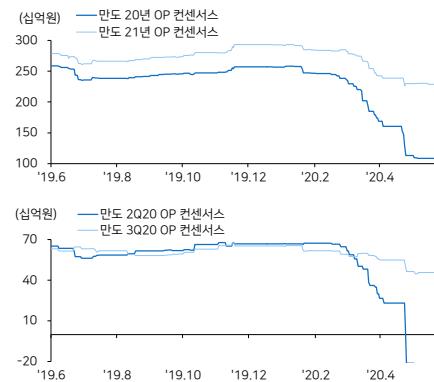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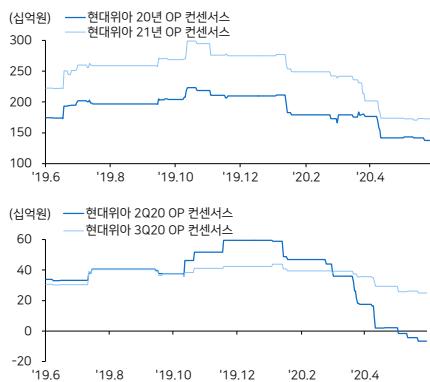
dabin.lee@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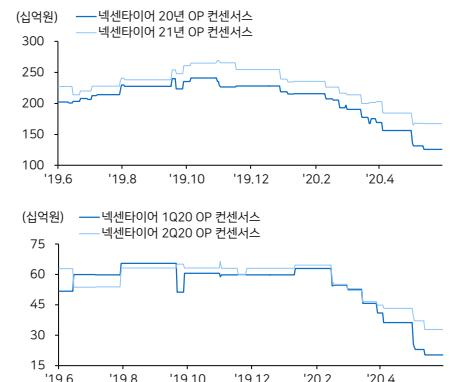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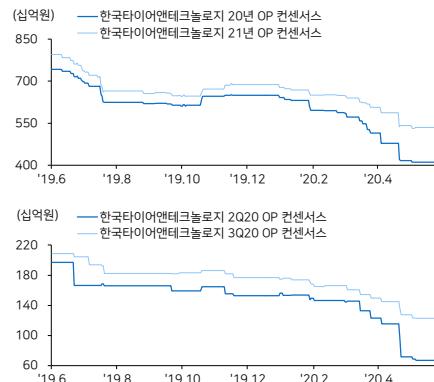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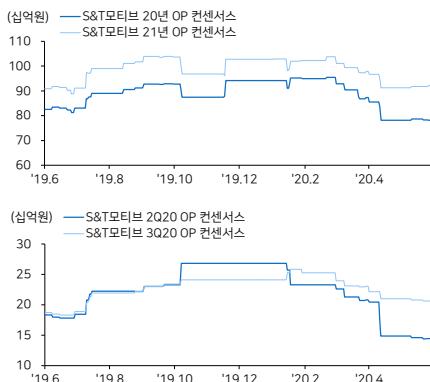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팰리세이드·GV80 다시 생산 시작 (한국경제)

현대차가 팰리세이드와 GV80 등의 생산라인 기동을 재개, 해당 라인은 협력업체 덕양산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여파로 가동을 중단, 덕양산업에서 공급받는 부품인 운전석 모듈 재고 부족으로 12일 오후와 15일 가동을 멈췄음.
<https://bit.ly/2N31b0B>

제네시스 G90, 겨울철 최고 세단 선정 (중앙일보)

제네시스 블리컨터리 본부는 '2020 제네시스 G90'이 올해 최고의 겨울철 세단에 뽑혔다고 밝힘. 뉴잉글랜드 자동차 기자협회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겨울철 세단에 대해 G90은 가장 부드러운 주행감을 선사하는 세단 중 하나였다고 총평.
<https://bit.ly/2UQ13My>

올 출시 국산차 관심도, 제네시스 3세대 G80 '톱' (서울경제)

올해 상반기 출시된 국내 제조사에 대한 '관심도' 조사에서 제네시스의 신형 G80과 GV80이 1·2위를 차지.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는 2020년 상반기 출시된 6종 차량에 대해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힘.
<https://bit.ly/3z7fIEt>

인도서 절나가는 현대차 '나비효과'...결국 쌍용차의 목 죄다 (중앙일보)

'현대·기아자동차의 물질 불리기가 쌍용자동차의 목을 조었다?'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 대주주 마힌드라&마힌드라(마힌드라)가 대주주 포기 가능성은 내비치면서 쌍용차의 앞날에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고 있음.
<https://bit.ly/3e8ivgL>

"10년 뒤 절반은 전기차"...현대차·폭스바겐·GM, 수십兆 투자 나서 (한국경제)

현대차는 내년 EV 생산량을 현재 연 10만 대 생산 체제에서 20만 대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 최근 사내간담회에서 NE 양산을 계기로 기존 전기차 모델의 생산량을 줄이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없던 일'로 정리됨.
<https://bit.ly/2YB2Csw>

기아자동차, 글로벌 PBV 시장 선점 위한 사업 추진 속도 냈다 (한국정책신문)

기아자동차가 PBV(Purpose Built Vehicle: 목적 기반 모빌리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음. 2030년 전세계 자동차 시장수요의 25%를 차지할 만큼 급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PBV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차원.
<https://bit.ly/2Y7oAOv>

현대차, 군사 부문 수소전기차·충전소 보급 확대 (파이낸셜뉴스)

현대차가 정부, 두산모빌리티(노는네이션)과 함께 국군 내 수소전기차 도입 및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협력. 현대차는 국방부 수소전기차 도입 및 수소충전소 구축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힘.
<https://bit.ly/2Ayoqv>

GM CEO "미국 자동차 시장 수요 탄원...중국은 전기차 중심 회복" (한국경제)

메리 바라 제너럴모터스(GM) 최고경영자(CE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미국 자동차 시장 수요가 탄원할 것으로 전망. 전기차동차는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
<https://bit.ly/2C966L7>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